

# “ 주님의 뜻이라면: 성 하나니아스 ”

글\_서희정 마리아 | 그림\_홍미현 세레나



길을 나선 하나니아스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았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소식과 진리를 선포하던 스테파노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란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들이고자 이곳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 온 소식은 다마스쿠스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사울이 눈이 먼 채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나니아스는 한동안 박해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안도감과 함께 언제 박해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기도하고 있었다. 부디 이 박해의 칼날이 그냥 지나가기를, 가엾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을 때였다.

“하나니아스야!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사울! 사울이라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가차 없이 매질하고 잡아가둔 사람을 대체 왜?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온갖 물음과 온갖 혼란 속에서 하나니아스는 어느새 ‘곧은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 먹기는커녕 마시지도 않고 있다면서?”

“아, 누가 아니래.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뚫고 하나니아스는 집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주님께서 이르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사울이 있었다.

“내가 정녕 저 사람에게 안수를 해야 한단 말인가?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눈이 머는 것 이상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니아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겼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하나니아스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 이어 하나니아스는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나니아스는 자신에게 세례받은 사울이 훗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도가 될 거라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 “태아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받아들여 태아와 임신 부모를 지원할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태아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글\_생명위원회